

서 명 부

1. 동일명칭의 지역 장애인단체 허가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경북장애인복지에 역행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북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복지행정에 역행하는 김관용 도지사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30만 도민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이에 연명으로 서명한다.

NO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8	박노환	황수	박노환	
19	김영환	영주시 강서면 내리 369	김영환	
20	유관용	영주시 신촌로 611, A동 2층 (신촌로 611)	유관용	
21	박민규	영주시 22리	박민규	
22	김현미	영주시 대동리	김현미	
23	박현서	영주시 성내1성	박현서	
24	김영환	영주시 내리 474-8		
25				
26				
27				
28				
29				
30				